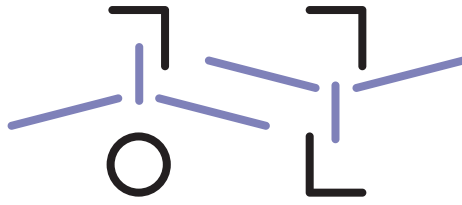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http://afine.co.kr>



2022
10
5 3 2



Contents

04	기획	국제평화를 위한 큰 뜻, 큰 날개
10	특집	조선 하늘을 최초로 비상한 조선인, 안창남
14	특집	드디어 돌아온 국내 최고 에어쇼, 2022 사천에어쇼 미리 보기

18	Aero Detail	마하 3급의 전술기들
24	무에서 유를	낭선(狼筈) - 자연 속에서 얻은 이동식 철조망
28	내 옆의 공군인	영원한 생명지킴이 권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위원장
3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73년을 넘어 미래로 가는 공군 (일병 황원진)
표 지(뒤) 금강호를 타고 경성 하늘을 누비는 안창남 (자토 작가)

발 행 일 자 2022년 10월 1일(통권 제532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상화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김용휘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2090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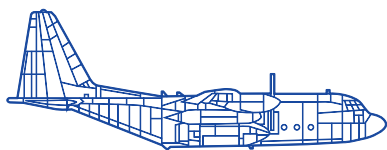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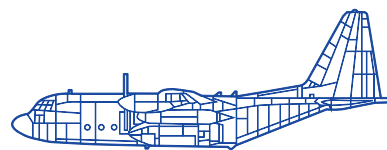
- 42 한 달, 한 권 하얼빈
- 44 명상을 말하다 지혜로운 말
- 46 영화로운 나날 『덩케르크』로 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의 활약
- 48 클래식 톡톡 노래로 이야기하다

-
- 50 생각하는 그림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 52 공군인의 편지 그날의 음식들
(제3훈련비행단 항공기정비대대 병장 이바다)
- 53 책읽는 공군 죽음을 기다리며 탄생을 보다
(제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상병 김진웅)
- 54 수용의 미학 장난과 폭력
- 5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국제평화를 위한 큰 뜻, 큰 날개



대한민국이 UN에 가입한 지 30년이 지났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군은 세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이어 왔다. 특히, 굵직한 전쟁들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 공군은 여러 차례의 파병을 통해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뛰어난 공군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왔다. 짧지 않은 파병기간 동안 전장의 한 가운데에 놓인 장병들은 때로는 대공위협에 맞서 싸우고, 때로는 검은 연기와 모래 폭풍을 견뎌야만 했다. 공군 창군 73주년을 맞은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그 이름을 떨친 우리 공군 참전·파병부대의 업적과 성과를 되돌아보자.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담대한 걸음, 제56공수비행단(비마부대)

부대 창설 6일 만에… 급박했던 걸프전 참전

1980년,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은 오랜 숙적인 이란을 침공해 8년간 전쟁을 이어갔다. 이 전쟁으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이라크는 재정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쪽 나라, 쿠웨이트를 침공할 계획을 세웠다. 오랜 전쟁으로 실전경험을 축적한 이라크는 결국 1990년,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해 쿠웨이트를 공격했다.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무력침공을 즉각 규탄했다. 특히, 석유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중동에서의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이라크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라크는 이에 불응했다. 결국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개시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걸프전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공군수송단 파병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2월 13일, 공군 제56공수비행단(이하 ‘비마부대’)이 창설됐다.

사실 비마부대 창설 전, 정부의 「중동사태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군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는 ‘비둘기 공수 작전’이 선행됐다. 1991년 1월 20일, 서울기지에서 출동 신고식을 마친 비둘기 공수 비행대는 30명의 작전 요원과 C-130H 수송기 2대로 구성돼 군 의료지원단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란까지 수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당시 C-130H 수송기는 도입 후 3년 남짓한 짧은 기간을 운용했을 뿐, 장거리 해외 공수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비둘기 공수 비행대는 9일 동안 약 3만 2천 km를 비행하며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리 공군의 사기를 고취시켰다.



비마부대 참전 환송식 당시 한 여성이 장병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있다.

비마부대 창설이 결정된 후 선발 인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현지 생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 이뤄졌다. 이들은 국제법과 보안은 물론, 이상 경보 발생 시 행동절차 및 자체방위 절차 등 사막전에서의 생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했다. 우리

공군은 1991년 1월 31일, 국방부로부터 파견지시를 받은 이후 2월 13일 비마부대를 창설하고 6일 만에 걸프전에 참전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교관 조종사 자격으로 참전한 고석목 예비역 대령(공사 31기, 이하 ‘고석목 대령’)은 “당시 둘째 임신 9개월 차에 아내를 홀로 두고 급히 떠나는 게 힘들었지만, 군인으로서 참전하는 것은 큰 명예였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국제사회에 진 빚, 이제는 갚을 때

1991년 2월 22일, C-130H 5대와 병력 160명이 아랍에미리트(UAE) 알아인(ALAIN) 기지에 도착했다. 알아인 기지는 적 스커드미사일 사정권에 들지 않고 C-130 기종이 주둔하며 숙영시설과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미군 기지였기에 비마부대의 주둔지로 선정됐다. 한국에서 알아인 기지까지의 비행거리는 왕복 24,148km에 약 50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여정이었다. 비마부대 알아인 기지 도착 환영식에서 박종기 당시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전쟁 시 우리를 도우려 온 UN군을 기억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빚을 갚자.”라며 부대원들을 독려했다.



비마부대 장병들이 공수를 위해 C-130H 수송기에 화물을 적재하고 있다.

비마부대에 부여된 임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안전지역에서 전방지역으로 화물을 공수하는 것이었다. 이때 임무난이도는 고려하지 않고 미 공군과 균등하게 임무를 배분했다. 비마부대는 지상시설이 미비한 임시 활주로를 이용하며 모래바람과 이라크군이 방화한 유정의 검은

연기로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희생 없이 완벽한 공수 임무를 수행했다. 1991년 2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37일이라는 작전 기간 동안 비마부대 요원들은 323회 출격하며 약 462시간을 비행했다. 당시 비마부대 정비사들은 주간에 전원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는 2조 1교대제를 운용함으로써 강행군을 이어갔는데, 이런 정비지원 강화로 인해 수송기 가동률은 96%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미군 항공기 가동률 87%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FE(Flight Engineer, 동승 정비사)이자 기체 정비사로 비마·청마·다이만부대에 모두 파병됐던 배태규 예비역 준위(준사관 83기, 이하 ‘배태규 준위’)는 “우리는 파병 전에 주둔지 환경을 미리 파악해 비행이 끝나면 미군 소방차를 지원받아 모래를 씻어내고 엔진 커버를 항상 씌워놔야 하며, 이러한 철저한 대비와 정비 요원들의 노력으로 평시에도 어려운 수준인 수송기 가동률 96%를 유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사막의 고온과 강풍이라는 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비사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걸프전 승전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 다국적군

우리 공군의 걸프전 파병은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유 공급량 70%를 담당하는 중동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발판을 형성했다. 중동의 특수한 지형과 기상 조건 아래 미국의 첨단무기가 동원된 현대전에 참가하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한 걸프전 파병은 공군에게 소중한 밑거름으로 남았다.

테러에 맞서 뚝뚝 뭉친 다국적군, 제57공수비행단(청마부대)



청마부대 창설 및 파병식 당시 모습

‘우리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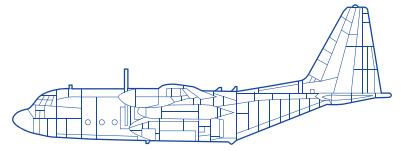
디에고 가르시아로 떠난 청마부대

2001년 9월 11일, ‘쌍둥이 빌딩’으로 유명했던 자본주의의 상징,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된 민간 여객기의 공격을 받아 시꺼먼 연기와 함께 무너졌다. 곧이어 워싱턴 펜타곤(美 국방부)도 납치 여객기의 공격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테러로 기록된 9·11 테러는 그렇게 시작됐다. 9·11 테러로 80여 개국의 약 3천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는 국가 또한 반드시 보복할 것을 선언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9·11 테러 배후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극단적 무슬림 무장조직, 알 카에다가 있었다.

알 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 제거를 위한 협력을 요구했으나, 탈레반 정권은 오히려 알 카에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결국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항구적 자유작전’을 개시했다. 우리 정부는 UN 결의와 동맹국들의 대아프간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2001년 9월, 미국에 파병을

제의했다. 동년 12월, 미국에서 공군수송지원단 파병을 공식 요청해오자 공군은 인원 150여 명과 C-130H 수송기 4대로 구성된 공군제57공수비행단(이하 ‘청마부대’)을 창설했다. 이억수 당시 공군참모총장(제26대)은 청마부대 창설 및 파병식에서 “항구적 자유작전 참가는 세계 평화수호를 위한 의무로서 반세기 동안 우리 안보의 골격이 되어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라고 강조하며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마부대 선발 장병들은 파병 전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정신전력교육, 국제정세, 임무 지원절차 등 파병을 위한 사전 교육을 이수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작전지역의 다국적군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오가며 병력·물자·환자 등을 공수하는 것이었다. 일본 항공자위대도 미국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고 우리 공군과 같은 임무를 요구받았으나, 디에고 가르시아의 지리적 위치와 경험 부족을 이유로 임무를 거절했다. 청마부대는 수차례 해외 주둔을 검토했으나, 여러 위험 부담과 작전 수행 조건 등을 고려해 김해기지에 주둔하면서 임무를 전개했다.



대비, 또 대비... 무사고 공수작전의 비결

2001년 12월 21일, 디에고 가르시아 현지에 도착한 청마부대는 태극기가 달린 국기 봉을 숙소 앞 땅속 깊이 고정하고 조출하지만 엄숙한 국기 게양식을 갖는 등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한 번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5박 6일이 소요되고 한 번 비행하면 약 4,600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해외 작전을 전개하면서 청마부대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한 공수작전을 펼쳤다. 태풍과 사이클론이 빈번히 발생하는 태평양과 인도양 상공을 오랜 시간 비행해야 했던 청마부대는 최대 40℃에 달하는 기온 차와 중간 기착지들의 다양한 법규와 관습, 동남아 지역에 유행했던 전염병인 SARS의 위협도 이겨내야 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 도착한 청마부대원들이 태극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마부대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한 비행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요원들의 안전이 1순위였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결함이 발견되면 비행에 영향이 없도록 각 기착지에서 밤이 새도록 정비했습니다.” 고석목 대령과 배태규 준위는 사고 예방을 위한 청마부대 정비 요원들의 노력을 힘주어 강조했다. 작전 전, 청마부대는 충분한 편대브리핑을 통해 비정상 상황과 비상사태에 대비했고, 악기상 예보 시 이륙시간을 조절해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며 예비계획도 꼼꼼히 수립했다. 청마부대는 디에고 가르시아에 함께 주둔했던 미·영국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공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청마부대는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군 도서관에 한국 홍보 책자를 기증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미·영국군에게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등 외교 친선 대사로로서의 임무도 수행했다. 청마부대 비행대장으로 파견됐던 고석목 대령은 “영국군이 주둔하는 영국령 섬에서 미군과 함께 작전하는 것은 서로 협력과 교류가 없었으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청마부대는 주기적으로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해 미영군과 친선을 다지고 한국 문화를 홍보했으며, 중간 기착지였던 필리핀, 싱가포르 지역 주민들에게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기념품을 배포하며 한국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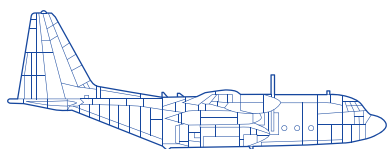
청마부대는 2003년 12월까지 총 81차에 걸친 작전을 수행하면서 병력 600여 명과 화물 약 310t을 공수했다. 임무 수행 중 기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미 군무원을 긴급 공수해 동맹군의 생명을 구하기도 한 청마부대에 미영군은 무한 신뢰를 보냈다. 마지막 임무 당시 거행된 대테러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과 국기 강하식에는 이른 새벽이었음에도 미 공군 제40원정단장과 해군지원단장, 영국군 사령관 등 많은 미영군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치고 떠나는 청마부대를 기렸다.

항상 그대와 함께,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부대)

수송기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 평화를 재건하다

2003년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라크 자유작전’을 개시했다. 이라크 자유작전은 다국적군이 후세인 정권의 군 시설과 전략 표적을 공격해 적 세력을 제압하고 지역을 장악한 뒤, 이라크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안정화 작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 이라크 평화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공군제58항공수송단(이하 ‘다이만부대’)이 창설됐다. 다이만부대는 ‘항상 그대와 함께’라는 뜻의 현지어 ‘다이만’이라는 이름처럼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다이만부대 선발 요원들은 약 한 달간 중동 지역의 특수 환경과 정세, 문화, 언어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는 등 그동안의 파병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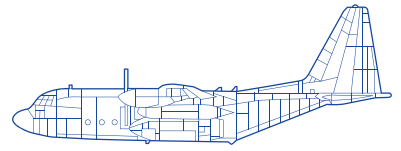
일찍이 이라크에는 우리나라의 서희부대와 제마부대가 활약하고 있었다. 서희부대는 공병부대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건축 공사 및 다국적군 기지 시설 보수 임무를, 제마부대는 의료지원단으로 다국적군과 이라크 난민 치료 등의 임무를 하며 이라크 안정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후에는 이라크 도시·농촌 재건사업 지원, 치안 유지, 인도적 지원 활동 등 이라크 재건을 위해 자이툰부대(이라크 평화재건사단)가 창설, 파견됐다. 당시 다국적군 중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인 사단급 부대였다. 서희·제마부대도 자이툰부대에 통합되어 임무를 계속했다.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 외곽에서 주둔하게 됐는데, 민항기를 이용해 한국에서 쿠웨이트까지 이동한 뒤, 다시 이라크 주둔지까지 가는 것은 다이만부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능률한 다이만부대 장병들의 모습

다이만부대는 2004년 10월,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로 전개해 미국·일본 등 다국적군과 함께 주둔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에서 다이만부대는 이라크 아르빌로 자이툰부대 병력을 물론, 각종 물자, 장비 등을 공수하고 환자를 수송하기도 했다. 자이툰부대와 다국적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공수지원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알리 알 살렘 기지에서 아르빌로 가려면 이라크 하늘을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다시피 해야 했기에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랐다. 심지어 C-130H 수송기를 향해 대공 사격을 가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수송기 바닥에 방탄판을 설치하고 조종사들은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고 개인 화기를 갖춘 채 조종간을 잡았다.

다이만부대는 대공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미군과 함께 지대공 공격에 대비한 나선 강하(나선 형태로 강하 비행을 하는 회피기동) 훈련을 하기도 했다. 매 착륙 시에는 착륙하기 약 50km 전, 약 7,000m 상공에서 기체를 좌우로 흔들며 450km/h로 급강하해 최단 시간, 최단 거리로 착륙하며 적대세력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한국 문화와 우수한 공군력을 동시에 알린다

다이만부대는 기지 내에서 다국적군과 함께 긴밀한 교류 활동도 펼쳤다. 한류열풍을 이끈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다국적군 장병들의 요청으로 다이만부대 장병들은 매주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가 하면,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승급 심사까지 진행하며 우리 언어와 문화를 알리고 우정을 다지는 문화사절단 역할도 수행했다. 다국적군과의 끈끈한 우정과 화합은 다이만부대의 작전 수행에도 매우 중요했다. 다국적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며 위협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서로가 서로의 눈과 발이 되어줘야 하는 연합작전에서 공군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팀워크’의 중요도는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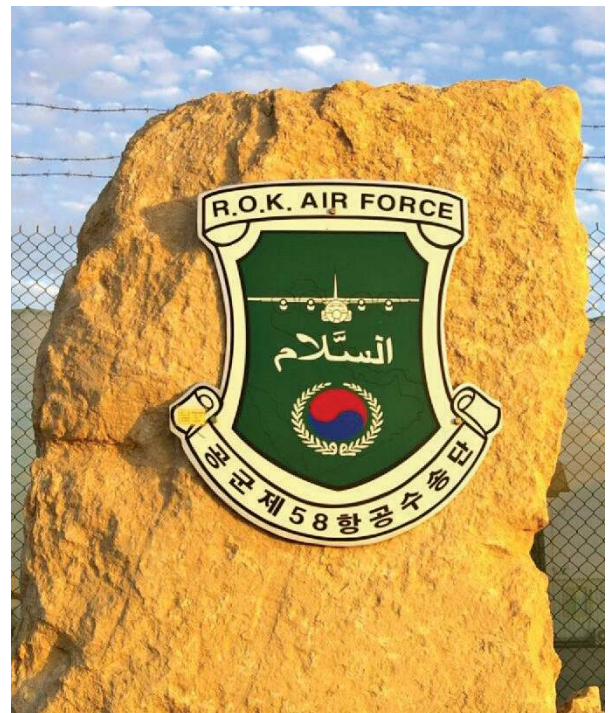


이라크 아르빌로 떠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C-130H 수송기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다이만부대는 총 9개 진에 걸쳐 임무를 수행했다. 투입된 인원만 1,323명이며, 총 2,530회 출격해 6,000시간 이상을 비행했다. 이 시간 동안 인원 43,905명, 화물 4,572t을 수송했다. 이들이 비행한 거리만 해도 약 331만 km. 이는 지구를 86바퀴 회전한 것과 맞먹는 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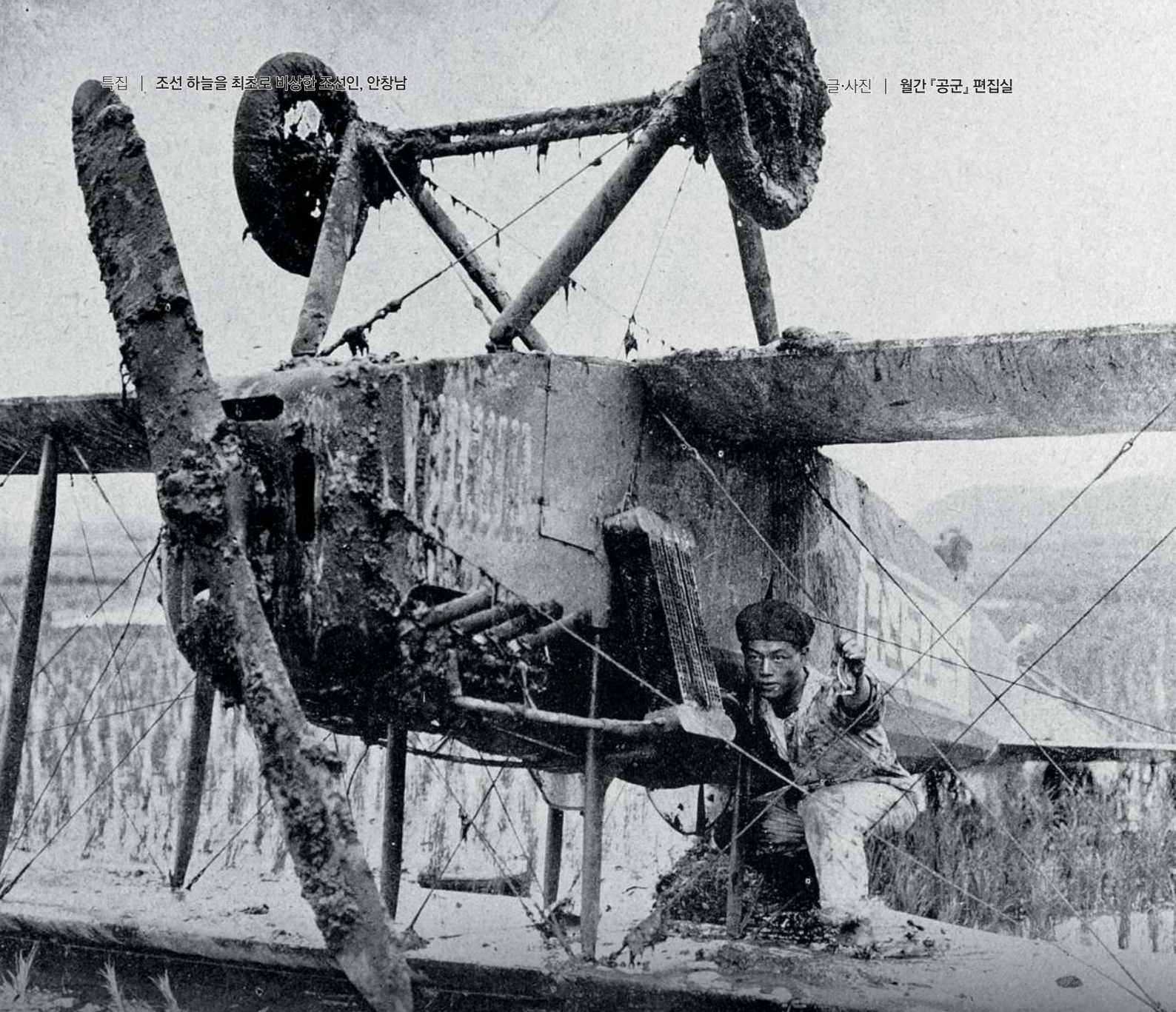
“작전 성공은 물론이고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파병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부대원들의 복지 및 사기 증진을 위해 주둔지 내에서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죠.” 다이만부대 1, 2진에는 참모장으로, 마지막인 9진에는 단장으로 참가한 고석목 대령은 부대장으로서 당시 목표를 분명히 했다. 철저한 관리로 인해 작전 수행

전 기간 중 발생한 사건·사고는 0건, 제로였다. 사막 한 가운데라는 작전환경 속 몰아치는 모래바람에도 임무에 지장을 줄 만한 엔진결함 한 번 발생하지 않았다. 다이만부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에 미 공군 장병들이 수송기 무사고 비법을 묻기도 하고 양국 정비사들 간 연합 교육과 훈련을 제의하기도 했다. 배태규 준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 공군 정비 요원들과 함께 항공기 상태와 무사고 비법 등을 서로 묻고 답하며, 우리 정비사들의 정비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라며 당시 우리 공군의 뛰어난 정비 수준을 묘사했다.



알리 알 살렘기지에 세워져 있던 다이만부대 현판

다이만부대는 자이툰부대의 병력과 장비 수송 지원 임무를 모두 마치고 나서 철수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다시 한국까지 약 6,000km를 날아 쿠웨이트에서 김해기지까지 나흘 만에 도착해 보고 싶던 가족들 품에 안겼다.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는 지난 4년 2개월간 이라크 평화재건사업을 위해 헌신했던 다이만부대의 공로가 담긴 파병 기념비가 우뚝 세워져 있다. **AF**



조선 하늘을 최초로 비상한 조선인, 안창남

1922년 12월 10일, 일제의 식민통치로 어두웠던 경성 하늘에 오색빛깔 항공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다. 경성 시민들은 힘차게 비행하는 항공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고 지켜봤다. 경성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한 항공기, ‘금강호’의 조종석에는 당대의 슈퍼스타 안창남(安昌男, 1901~1930)이 타고 있었다. 사상 최초로 조선 하늘을 비상한 조선인 안창남은 자신을 위해 거리로 나와 준 경성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라도 하듯 여의도와 동대문, 창덕궁 상공을 지나며 뛰어난 비행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올해는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 항공사(航空史)에 길이 남을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기획전이 개최됐다는 소식을 듣고 『공군』 편집실이 국립항공박물관을 다녀왔다. 안창남의 출생부터 항공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을 다룬 이번 특별기획전을 소개하며 안창남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진: 1923년 6월, 일본 정치인 추모행사 중 눈에 추락했으나 탈출에 성공한 안창남

비상을 꿈꾸며 도약하다

안창남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했다. 국민들은 한순간에 조선을 잃었고 그 설움은 일상이 되었다. 안창남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라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불우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안창남은 미국인 곡예 비행가 아트 스미스가 선보인 비행을 관람하고 조종사의 꿈을 품었다. 그로부터 2년 뒤, 휘문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안창남은 학교를 그만두고 꿈을 펼치기 위해 홀로 일본 오사카 유학길에 올랐다.

안창남은 오사카에 있는 자동차 학교에 들어가 발동기 관련 교육을 받으며 3개월 만에 운전수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도쿄로 넘어가 아카바네 비행기 제작소 기체부에서 6개월간 비행기 구조와 조직, 성능 등을 익힌 안창남은 1920년, 오구리 비행학교에 입학해 6개월간 비행 교육을 받았다. 당시 일본 항공국은 항공국 시험에 합격해 비행면허증을 취득해야만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제했는데, 안창남은 비행사 자격시험의 세 가지 과목에 모두 합격해 3등 비행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안창남은 천재적인 비행기술로 1년 뒤 2등 비행사 면허, 또 1년 뒤 1등 비행사 면허까지 취득했다. 안창남의 비행 실력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주목하고 있었다.

안창남의 비행 실력이 주목받게 된 주된 계기는 바로

일본 제국비행협회가 개최한 ‘우편비행대회’였다. 당시 대회에 참가할 비행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안창남은 육군항공국에서 성능시험에 떨어진 150마력 비행기를 빌려 가카스로 대회에 참가했다. 타 참가자들의 비행기보다 성능이 낮은 기체로 최악의 기상 상황을 버텨낸 안창남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약 550km를 비행했고 당시 일본에서 가장 긴 비행기록을 세웠다. 안창남은 1920년 창간된 종합잡지 『개벽』에 기고를 내어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암운(暗雲)하여야 그런 암운은 업섯습니다.…어대가 위인지 아래인지 어대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길 도모지 업고 그저 캄캄한 속에서 시계와 시침만 보고 그냥 돌진하는 뻔하게 업섯습니다.”

일본 열도를 놀라게 했던 비행사 안창남은 2등 비행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이제 조선 하늘을 날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 의사가 조선에 전해지자 경성 유지 수십 명이 모여 ‘안창남 고국 방문 비행 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총독부의 압박으로 인해 후원회는 끝내 안창남에게 비행기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조선인에게 안창남은 그야말로 희망이었다.



안창남은 『개벽』 제30호에 기고를 통해 우편비행대회에서의 위급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고국에서 비상하다

1922년 8월, 안창남은 오구리 비행학교에서 고국 방문 비행에 나설 비행기인 금강호를 조립하고 비행기 동체에는 조선의 지도와 프로펠러를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크게 새겼다. 본인의 비행기를 갖지 못했던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을 위해 엔진을 비롯한 부속품들을 주워 모아 맞춘 소중한 비행기였다. 동년 12월 5일, 안창남이 드디어 경성에 도착했다. 경성 시민들은 금의환향한 안창남을 환영하기 위해 남대문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비행 당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일 관객을 위해 전차가 총동원되어 임시 열차까지 운행되는 등 안창남의 등장과 비행은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1922년 12월 10일, 동아일보의 주최로 열린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은 여의도비행장에서 시작됐다. 여의도를 이륙한 안창남과 금강호는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를 지났고, 창경궁 상공에서 순종 황제에게 경의를 표한 후 남대문 등을 지나 다시 여의도에 착륙했다. 약 1시간 30분 뒤, 고등비행(高等飛行)에 나선 안창남은 800m 상공까지 치솟은 뒤 15분간 화려한 비행기술을 선보이고 공중에서 오색 전단지 1만 장을 세 차례에 나눠 뿌리며 본인을 환영해 준 경성 시민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며칠 뒤인 12월 13일에는 경성과 인천을 왕복하는 비행을 하기도 했다.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은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안창남의 고국 방문 이후에는 안창남과 금강호의 내용이 가사로 담긴 여러 민요가 유행처럼 번졌다.



안창남 고국 방문 비행 경로



국립항공박물관에 전시된 안창남의 이름과 한반도가 새겨진 금강호 복원 모형

조국을 위해 비상하다

1923년 3월, 난데없이 안창남이 암살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 해 9월, 도쿄가 거의 전멸했던 간토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병원에서 입원 중인 안창남이 화재로 사망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조선의 희망인 안창남의 사망 소식에 조선인들은 절망감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간토대지진으로 안창남이 위험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는 모두 오보였다. 또 간토지진 이후 흥흥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조선인을 학살한 일제의 만행으로 안창남도 희생될 뻔했으나 구사일생으로 화를 면했다. 수많은 조선 동포들이 무참히 학살당하는 모습을 본 안창남은 분노했고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가담하리라는 결심을 했다.

중국 상하이로 건너간 안창남은 독립운동가 여운형의 도움을 받아 연시산 군에 합류해 산시성 항공대 비행학교 교관과 항공군 제2대 사령관을 역임하며 활약했다. 이 당시 중국에서 활동한 조선인 비행사는 안창남을 비롯해 권기옥, 서월보, 최용덕 등이 있었다. 당시 군사 양성도 불가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종사를 꿈꾸는 한국 청년들을 해외 항공학교에 보내 군인으로 양성

하며 항공독립운동의 꿈을 키워나갔다.

1928년 말, 안창남은 비행학교와 같은 무관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인 의열투쟁 단체, 대한독립공명단을 조직하고 군사 양성을 계획했다. 대한독립공명단은 국내에 단원을 파견해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현금 운송 차량으로부터 금품을 탈취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안창남의 항공독립운동은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조선 비행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전상국, 민성기 등 많은 이들이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다. 천재는 요절한다 했던가. 1930년, 안창남은 산시성 타이위엔에서 비행 교육을 하던 중 엔진 이상으로 추락해 사망하고 만다. 그의 나이는 겨우 서른이었다. 안창남이 부품을 모아 만든 금강호를 타고 조선인 최초로 경성 하늘을 비행한 지 100년이 된 오늘날, 우리는 우리 기술로 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를 타고 영공을 방위하며 항공우주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대한민국 항공사(航空史)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진 그를 기억하며 한 관람객의 관람 후기로 글을 맺는다. AF



국립항공박물관에 어느 관람객이 남긴 후기, '인간으로 30년 전설로 100년 하늘에서 영원히'



드디어 돌아온 국내 최고 에어쇼, 2022 사천에어쇼

미리 보기 Q

국내 최고의 에어쇼, 사천에어쇼가 3년 만에 돌아온다. 그간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개막이 무산되었던 만큼 올해는 경상남도 와 사천시, (주)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공군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2022 사천에어쇼는 ‘꿈’이라는 주제로 개막되어 누군가에게는 꿈의 무대로,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꿈을 위한 도약으로써의 항공우주 축제가 될 전망이다.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비행부터 각종 항공우주 분야 체험활동까지 이번 2022 사천에어쇼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행사를 더욱 알차게 즐겨보자.

항공대회부터 에어쇼까지 즐길거리·볼거리 가득

사천에어쇼는 항공우주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우주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10월 20일(목)부터 23일(일)까지 총 4일간 사천비행장, 사천종합운동장 등에서 개최되며, 행사는 총 9개 분야, 1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개막 전부터 국군교향악단과 공군군악대의 화려한 전야제가 시작된다. 두 음악회는 총 1,60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사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Space Challenge 2021 무인항공기(드론) 코딩 경연대회 시범경기 당시 모습

10월 20일(목)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2 사천에어쇼의 막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사천에어쇼는 단순히 볼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과 일반인이 직접 참여해 경쟁하는 항공대회 총 5개가 연이어 이어지

기 때문이다. 공군이 주관하는 「제43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22 무인항공기(드론) 코딩 경연대회」는 사전 온라인 예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코딩을 통해 무인항공기가 지정된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견준다. 「제6회 공군참모총장배 드론종합경연대회」 역시 공군이 주관하고, 사전 접수한 3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로 부딪혀 상대방의 드론을 추락시켜야 하는 드론클래쉬 종목과 팀을 이뤄 골대로 드론이 통과하면 점수를 얻는 드론축구 종목으로 구성된다. 한국모형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모형항공기대회」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전동비행기로 나눠 분야별로 경쟁하는 대회다. 이밖에도 컴퓨터로 국산 항공기(KT-1, T-50)를 조종해 경주하는 「항공시뮬레이션 에어레이싱대회」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위플레이'가 주관하는 「제1회 종이비행기대회」도 개최된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끄는 에어쇼와 전시회도 준비되어 있다. 개막식에는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항공기 40대가 축하비행(Fly-by)을 펼친다. 이후, 지난 영국 RIAT(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에서 다시 한 번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총 여섯 번에 걸쳐 하늘을 수놓는다. 또한 호주의 곡예비행팀, 폴베넷 에어쇼팀도 화려한 비행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항공우주의 꿈과 전문지식까지 얻을 수 있어

KT-1, T-50과 새로 개발된 소형무장헬기 LAH(Light Armed Helicopter)의 단기기동을 비롯해 공군 HH-60, CH-17 등을 활용한 탐색구조시범, 고공강하시범도 추가로 이뤄진다. 특히, 미리 신청한 관람객들은 공군 C-130, HH-47과 대학 항공기, 민간 경량항공기에 직접 탑승해 비행하는 등 특별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해 조종 장구를 착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공군의 핵심 전력 F-35A 스텔스 전투기, E-737(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120대의 유·무인 항공기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며, 미사일과 같은 각종 항공무장과 화생방·폭발물처리(Explosive Ordnance Disposal, EOD) 장비 30여 점 전시, 항공무기체계 부품 견본 전시회와 산업체 전시도 눈여겨볼 점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될 예정이다. 제3훈련비행단 「역사전시장 견학」, KT-1 시뮬레이터를 체험할 수 있는 「항공캠프」, 조종사, 정비사 등 현직 장병이 들려주는 「진로특강」,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현장,

에비에이션센터를 둘러볼 수 있는 「현장체험」 등 청소년들이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계획이다.

「한국비행시험협회 연례세미나 2022」, 「제22회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제5회 민·군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세미나」에는 민·군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외 항공우주 기술에 대해 발표하는 지식의 장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군군악대와 의장대 공연 및 시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의 시범, 블랙이글스 조종사 사인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행사장을 가득 메운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위플레이의 색다른 종이비행기 시범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각 주 최기관은 사천에어쇼 행사장의 방역과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해진 항공우주 축제, 2022 사천에어쇼를 관람해보는 것은 어떨까. 2022 사천에어쇼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airshow.sa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acheon
AIRSHOW



@sacheon_airshow 사천에어쇼 공식 유튜브

다양한 이벤트, 선물이 팡팡!

#블랙이글스 에어쇼

#무료체험비행

#올해기대되는행사

#공군과함께

2022 SACHEON AIRSHOW 사천에어쇼

10.20.(목) - 10.23.(일) / 사천비행장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경상남도
GYEONGNAM



사천시
SACHEON CITY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마하 3급의 전술기들

SR-71 블랙버드 정찰기

역사상 가장 빠른 제트기로 기록되는 SR-71 ‘블랙버드’는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인 마하 3(3,672km/h)으로 순항비행이 가능하다. 냉전시절, 공산권 국가에 대한 전략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밀리에 개발된 블랙버드의 최고속도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 전설로 남아있다. 이러한 SR-71 블랙버드의 개발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은 소련 영공에 대한 정찰을 목적으로 고고도 정찰기 U-2를 개발했다. 1954년에 등장한 U-2는 당시 소련의 요격기가 상승할 수 있는 고도보다



역사상 가장 빠른 제트기, SR-71

도 더 높은 85,000ft(약 26km)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소련 영공을 안전하게 정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도의 우위는 얼마 가지 않았다.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CIA는 1958년이면 더 이상 U-2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예측했던 것이다. CIA는 U-2를 대체할 차기 비밀 정찰기 개발을 계획한다. OXCART라 명명된 이 비밀프로젝트는 록히드사를 주 계약사로 결정하고, 1959년부터 비밀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OXCART 프로젝트로 탄생한 SR-71의 요구도는 순항속도 마하 3.29(약 4,027km/h)에 운용 고도 90,000ft(약 27km)라는 극단적인 수준이었다. 마하 3 이상의 고속비행에서는 대기와의 마찰열 때문에 기



SR-71용 엔진인 J58 터보 램제트

체 표면 온도가 260℃ 이상으로 상승한다. 일반적인 항공기 소재는 이러한 온도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SR-71은 구조 중량의 대부분을 열에 강한 티타늄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한다. 마하 3에서 작동할 수 있는 특수 엔진의 개발도 새로이 추진됐다. SR-71용 엔진으로는 기존 터보제트 엔진 구조를 이용하여 추력을 극대화시킨 프랫 & 휘트니의 J58 터보 램제트 엔진(추력 31,500lbs)을 쌍발로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1970년대 들어 SR-71은 속도와 고도 면에서 수많은 신기록을 수립했다. 정찰기로서 SR-71은 80,000ft(약 24km) 이상의 상공에서 시간당 100,000 평방마일의 지구표면을 정찰할 수 있었다. 정찰장비로는 기수 등 4개소의 센서 베이(Sensor Bay)에 광학 정찰장비, 전자정보 수집장비, 적외선 정찰장비 등을 탑재해 임무에 맞게 사용했다. 광학 정찰장비의 성능은 80,000ft 상공에서 골프공을 촬영할 정도였다.

총 31대가 생산된 SR-71은 미 공군과 해군, NASA에서 운용됐다. 사고로 인해 총 12대를 잃었고, 1990년 1월 25일에 운영유지비의 과다소요와 정찰위성의 발달로 26년간의 정찰임무를 마치고 퇴역했다. 일시적으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대가 작전에 복귀하기도 했지만 1998년에 SR-71 프로그램은 완전 종료됐다.

SR-71은 비록 퇴역했지만 26년간의 운용 기간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높은 고도에서 비행한 유인 항공기였다. SR-71보다 더 빠른 항공기로는 X-15 실험기가 있다. 그러나 X-15는 로켓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흡입 엔진을 사용하는 블랙버드의 최고속도 기록은 아직도 유효하다.

YF-12 블랙버드

탄생한 지 60년이 지난 YF-12 블랙버드는 아직까지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유지될 정도로 경이적인 성능을 가졌던 전투기이다. 세계 최대속도 전투기, 세계 최고고도 전투기, 세계 최대중량 전투기, 세계 최대 탐지거리 레이더 탑재 전투기, 세계 최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 전투기 등 YF-12가 세운 신기록은 지금까지도 항공계의 전설로 남아있다.

YF-12의 탄생은 미국 CIA의 A-12(SR-71) 비밀 스파이 항공기 개발에서부터 시작된다. 1960년대에 미 공군은 마하 2(2,448km/h)급의 F-106 요격기의 후계기로 마하 3급 전투기가 필요했고, 록히드는 A-12 정찰기의 전투기형을 미 공군에 제안한다. A-12는 이미 CIA의 비밀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 공군은 저렴하게 마하 3급의 전투기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제안은 A-12 사업에 미 공군을 전면으로 내세워 주체를 감추고 싶어했던 CIA의 입장과도 맞아떨어졌다. 미 공군과 CIA의 결정에 따라 A-12의 전투기형, 즉 YF-12 블랙버드의 개발은 1960년 8월에 승인된다.



항공계의 전설, YF-12



마하 6 속도에 210km 이상 사거리를 갖는 AIM-47A 펄콘 장거리 미사일

이미 마하 3급의 A-12를 개조해 탄생하게 되는 YF-12에는 세계 최고의 눈과 발톱이 추가되었다. YF-12의 눈으로는 탐지거리가 500마일이 넘는 AN/ASG-18 펄스도플러 레이더가 채택되었다. AN/ASG-18은 레이더 직경만 1m가 넘어 전투기용 레이더로는 현재까지도 최대크기에 해당한다. 원래 XF-108 전투기용으로 개발 되던 이 시스템에는 적외선 탐지추적 센서까지 통합되어 전자전 상황에서도 적기 탐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ASG-18 레이더와 결합되는 무장은 AIM-47A(GAR-9) 펄콘 장거리 미사일이다. 1958년에 AN/ASG-18 과 병행하여 개발이 시작된 이 미사일은 마하 6(7,344km/h) 속도에 210km 이상 사거리를 갖는 대형 미사일 이었다. 공대공 미사일 추진방식으로는 특이하게도 액체연료를 사용했던 AIM-47은 중간유도에 반능동 레이 더유도방식을, 종말유도에는 적외선유도방식을 사용했다. 탄두는 당시 방공개념을 반영하여 250kt 위력의 핵탄두 탑재도 가능했다.

1963년 8월 7일에 첫 비행을 성공한 YF-12A는 1964년에 표적기에 대한 장거리 요격실험까지 성공리에 마 쳤다. 성능에 만족한 미 공군은 1965년에 93대의 양산형 F-12B를 록히드에 주문했다. 하지만 공군의 구매 의지에도 불구하고 맥나마라 당시 국방부 장관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1966년에 YF-12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 시켰다.

대량생산되었다면 러시아의 MiG-25를 능가하는 가공할 요격기가 되었을 YF-12는 결국 드라이든 비행연구 센터로 이관되어 1979년까지 실험기로 사용된 후 퇴역했다. YF-12 사례는 성능도 만족스러웠고, 소요군도 사용을 원하는 경우였지만 비용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맥나마라 장관의 의지 때문에 취소된 경우이다. 맥나 마라 장관의 무리한 의지는 이후 미 공군과 해군의 주력 전투기를 F-111 단일 기종으로 통합한다는 TFX 계획도 탄생시켰지만 이 계획도 실패로 끝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XB-70 발키리 폭격기

1964년 9월 21일 아침, 미 공군 팜데일 공군기지에서는 역사상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항공기가 떠올랐다. 길이 60m, 무게 250t, 마하 3의 속도로 순항하며 20t의 수소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발키리 폭격기가 탄생한 것이다.

발키리(Valkyrie)는 북유럽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이다. 거인족에 대항하기 위해 전사의 영혼을 모으는 발키리는 소련이라는 거인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지를 표현하는 명칭이기도 했다. 비록 양산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XB-70 발키리는 인류가 만든 항공기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오래 비행하면서 인류를 파멸로 이끌 만큼 무장을 탑재했던 “가장 강력한 항공기”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XB-70 개발이 논의되던 1950년대는 구소련의 핵전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전략공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륙 간 핵공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B-36, B-47, B-52 등 전략폭격기를 순차적으로 취역시키던 때이다. 미국 전략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구소련은 초음속 전투기인 MiG-19와 MiG-21을 배치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초음속 폭격기인 B-58 허슬러 폭격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B-58은 항속거리가 짧아 B-52 장거리 폭격기를 대체할 수 없었다. B-52의 후계기로는 장거리 항속이 가능한 핵추진 항공기 WS-12부터 마하 3급의 WS-110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고려되었다.

XB-70 폭격기는 이 WS-110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노스아메리칸의 폭격기 제식명칭이다. 1964년에 처음 비행한 시제기는 1966년에 고도 22,550m와 시속 3,250km라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고고도를 마하 3의 속도로 순항하기 위해 XB-70에는 고속비행 시 날개가 아래로 꺾여지는 설계가 적용되었다. 이는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주날개 아래 공기의 압력이 상승되는 압축효과를 비행에 활용하기 위해 적용한 설계방식이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항공기, XB-70



XB-70은 주날개 끝이 아래로 꺾이도록 설계됐다.

착륙할 때 기수를 아래로 꺾을 수 있도록 한 설계방식도 콩코드 초음속여객기보다 XB-70에 먼저 적용된 설계방식이다. 유로파이터, 라팔 전투기와 같이 기수의 카나드(선미익)와 삼각형 주익을 결합한 방식도 발키리 설계가 시작된 1950년대에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었다.

놀라운 성능을 보였던 XB-70의 비극은 1966년 6월 8일 아침에 시작되었다.

홍보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XB-70과

F-104N 전투기가 공중에서 충돌하여 추락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추락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었던 XB-70의 반대여론이 커졌고, 1969년 2월 4일의 비행을 끝으로 결국 XB-70 폭격기 양산계획이 취소되었다.

XB-70은 고고도에서 마하 3급의 속도로 적지를 침투하기 위해 1950년대 미국의 모든 항공기술 역량을 집대성한 결과물이었다. 그 결과 XB-70은 매우 고성능의 무기로 탄생했지만 운용 개념은 성능을 따라가지 못했다. 1950년대 말부터 이미 다양한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었고, 1960년대에 불어닥친 미사일 만능주의는 XB-70의 고고도 침투개념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저고도 고속침투전술을 구사하는 B-1 폭격기를 다시 개발하기도 했다. XB-70의 성능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도 격추시키기 어려운 우수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는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장비의 성능보다 운용개념 연구와 미래 전장환경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XF-108 레이피어 전투기

냉전시대에 미국은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이 전략폭격기였으며, 이는 소련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은 소련 폭격기가 요격되더라도 자국 영토에는 피해가 없도록 원거리에서 폭격기를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요격기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58년 미 공군은 작전운용서 GOR-114에 LRI-X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신형 장거리 요격기 개발을 추진했다.

LRI-X 프로그램 초기에는 미사일과 유사한 형상의 리퍼블릭 XF-103이 미 공군에 제안되기도 했지만, 개발상의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기존의 F-89, F-101 전투기를 대형화하는 안이 뒤이어 등장했지만, 마하 3급의 전투기는 기존 기체의 개조로 달성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LRI-X 프로그램의 설계안으로 채택된 기종은 노스 아메리칸의 XF-108 전투기였다. XF-108의 특징은 마하 3의 속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J93 엔진과 GAR-X 핵탄두 공대공 미사일, AN/ASG-18 레이더 화력통제장치로 요약된다.

AN/ASG-18 펄스도플러 레이더는 YF-12 블랙버드 전투기에도 채택되었던 레이더다. AN/ASG-18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XF-108은 요격뿐만 아니라 유사시 지상의 방공레이더를 일부 보완하는 역할도 고려되었다. XF-108의 주요 무장이었던 GAR-X 공대공 미사일은 YF-12에 고려되었던 GAR-9(AIM-47A)로 구체화되었고, 공대공 핵탄두 탑재도 가능했다.

최대추력 13t의 J93 엔진을 쌍발로 탑재한 XF-108은 고도 24km에서 시속 3,187km,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요격임무를 수행하고, 줍업 상승으로 최대 30km까지 상승한다는 성능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외부연료탱크 탑재 없이 1,852km 이상의 작전반경이 요구되어 기체는 대형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었다. 1959년에 제작된 XF-108 실물크기 모형은 길이는 27m에 이르는 대형기체였고, 공허중량 22t, 최대이륙중량이 46t으로 예상되었다. 무장은 동체 내부에 GAR-X 미사일 3발을 표준으로 탑재하도록 설계됐다.

마하 3급의 고속 장거리 요격기로 야심차게 개발이 추진되던 XF-108은 1959년 9월에 결국 예산문제로 취소되고야 말았다. 비록 XF-108 기종은 취소됐지만 XF-108 탑재를 위해 개발되던 AN/ASG-18 레이더와 GAR-X 미사일은 예산의 압박에도 살아남아 훗날 A-5 공격기, F-111 전투기, F-14 전투기 탄생에 기술적 밑거름이 되었다. AF



길이 27m에 이르는 대형 전투기, XF-108



글쓴이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 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무에서 유를

낭선(狼筈)

- 자연 속에서 얻은 이동식 철조망

狼筈
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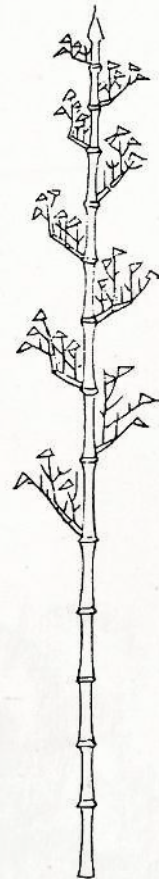


글쓴이 소개 『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를 28년 동안 한결 같이 수련하였으며, 무예를 통해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조선후기 무예사 연구』, 『병서, 조선을 말하다』,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등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기억은 참호전에서 출발한다. 대규모 병력이 일시에 맞닥뜨려 창검이 난무했던 전통적인 전술체계가 기관총이나 대구경포의 발달과 함께 전장에서 일순간 의미를 잃었다. 기병의 충격전술을 이용한 재빠른 돌파모습이나 밀집보병 간의 밀고 당기는 진군과 대회전은 무자비한 화약내음 속에서 연기처럼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 대신에 깊고 축축한 참호가 만들어진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시 적군의 기관총을 피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 알프스 북부에서 저 멀리 북해까지 연결될 정도로 서부전선의 참호는 그 길이만큼 길고 긴 전쟁의 모습을 알리기에 충분했을 정도였다. 그 참호를 보호하기 위해 수 km에 달하는 철조망을 수십 겹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기관총이 십자포화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철의 방어막이 굳어져 갔다.

몇 날, 아니 몇 개월에 걸친 쉽 없는 양측의 공방 속에서도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져 참호만 더 길고 깊어졌다. 소나기 같은 기관총의 총탄과 악마의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낭선 외형의 그림

사슬과 같은 철조망을 뚫어내기 위하여 더 두터운 철의 장갑을 두른 전차가 만들어지고, 깊은 참호 속까지 은밀히 침투하기 위해 독가스를 비롯한 화학전 무기가 개발된 것이다.

비행기도 그 과정에서 발전했다. 몇 겹으로 뒤엉킨 철조망 너머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1차 세계대전 초기 비행기는 정찰이 핵심 임무였다. 아군과 적군이 하늘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하다가, 권총을 들어 사격을 가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후 거대한 비행선이 폭격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비행기에 기관총이 설치되었고, 프로펠러와 기관총의 동조기어(Synchronized Gear)가 완성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투기 사이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아군과 적군의 전투기가 서로 근접전을 펼치는 도그 파이트(Dog-Fight)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꼬리 방향(Dead Six, 죽음의 6시)을 상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편대비행을 비롯한 다양한 항공전술이 실전을 통해 완성되었다. 당시에는 조종사의 뛰어난 조종술이 최고의 전술이자 핵심 무기였다.

1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군은 약 400여 대의 비행기를 보유하며 독일군과 맞섰다. 이후 전쟁이 종결될 무렵에는 무려 1만 3천여 대로 늘어났을 정도로 공군력에

대한 확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철조망에 가려진 적진을 정찰·감시하는 역할이었지만, 비행기의 성능과 비행술의 고도화로 전쟁이 종결될 무렵에는 정찰감시와 공중전은 기본이고 최전선 적 진지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후방의 지상주요시설에 대한 폭격까지로 임무가 확대되었다.

어찌 보면 철조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차나 비행기를 비롯한 신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전술들이 개발된 것이다. 철조망의 경우도 19세기 후반, 미국의 목장에서 소 떼를 안전하게 방목하기 위해 만든 것을 전장에서 활용하며 전술적 활용가치가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철조망과 유사한 방호형 무기가 존재했다. 물론 적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단단한 거마목(拒馬木)이나 날개의 날카로운 쇠 조각을 흠뻑리는 철질러(鐵蒺藜) 형태의 마름쇠가 고대부터 사용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기병들은 마름쇠를 포대에 담았다가 퇴각하며 조금씩 흠뻑려 추격하는 적 기병의 빠른 움직임을 차단하기도 하였다. 이보다 한 단계 진화한 무기이자, 무예가 낭선(狼筵)이었다.

낭선은 대나무로 만든 죽장창처럼 긴 창 형태였다. 전장 1장 5척, 약 4m 60cm의 긴 창대에 대나무의 가지를 제거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외형이다. 대나무 겹가지는



뒤로 빠르게 물러서며 방어를 펼치는 요보퇴세.
낭선은 왼손의 중지과 검지 사이에 끼워 넣어 두 팔을 완전히 펼치듯 잡는다.

손잡을 부분에는 제거하지만, 창날 쪽부터 약 9층에서 11층까지 가지를 자르지 않고 끝부분만 살짝 마무리 지어 그 끝에 작은 쇠 창날 수싵 개를 하나씩 끼워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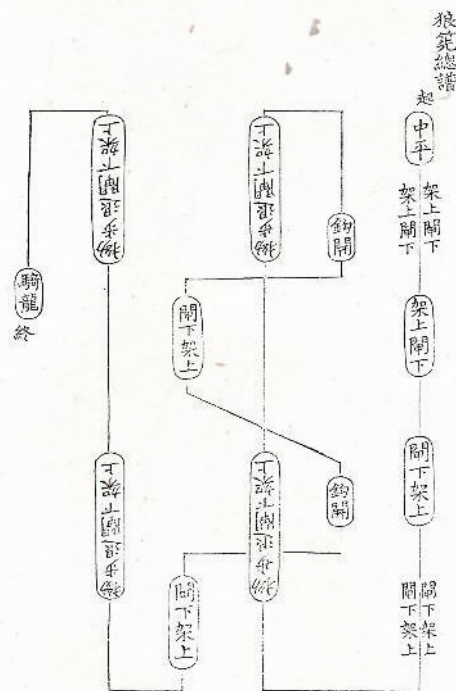
특히 그 끝까지 끝에 붙은 쇠 창날에는 독을 발라 적의 접근을 막았는데, 움직이는 휴대용 철조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무기이다. 조선시대에 사용한 독은 자연에서 얻은 독극물을 무기 표면에 묻히거나 공기 중에 유포하는 방식이었다.

대표적으로 쇠와 수분이 만나 생기는 녹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몽포(飛礮砲)처럼 석회가루를 곱게 갈아 화약에 묻혀 발사하는 형태였다. 거기에 각종 약초 중 독 성분이 강한 것을 추출하여 무기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낭선 결가지들에 설치한 철 조각이 적 보병이나 전투마의 몸에 닿으면 독 중독을 일으키기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낭선은 무거웠다. 일반 장창에 비해 9층에서 10층의 겹가지에 철 조각까지 달았으니 쉽게 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파지법(把指法) 즉, 손잡는 방식이 필요했다. 또한, 낭선의 핵심 자세에는 마치 드라이버로 나사를 돌리듯, 상대를 향해 빙글빙글 돌리며 파고드는 자세가 핵심적이다. 낭선을 아래로 누르듯 돌리면 압하세(壓下勢)가 되고, 반대쪽으로 올리듯 돌리면 가상세(架上勢)가 되는 것이다.

그 무겁고 독특한 회전 자세를 만들기 위해 뒷손은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왼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낀 뒤 쪽을 끼우듯이 잡아야 했다. 일반적으로 무기를 드는 뒷손은 장창을 들 때처럼 팔꿈치를 굽히고 손목을 꺾어 무기를 잡지만, 낭선은 좌우로 팔을 완전히 벌리듯 잡아야 하기에 독특한 파지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다 넓은 면적을 두 팔을 벌려 잡을 수 있기에 낭선을 통제하기 쉬웠다.

그리고 적이 빠르게 돌진해 올 경우, 요보퇴세(拗步退)



낭선을 익히는 자세를 연속으로 모아 놓은 〈낭선총보〉. 빙글빙글 돌리는 갑하세와 가상세가 연결되어 있고, 낭선을 빗자루로 쓸듯 좌우로 크게 움직이는 동작인 구개세는 수평으로 선이 그려져 있다.

勢)를 이용하며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낭선을 빙글빙글 돌리며 적의 진입을 막아낸다. 바로 이어 낭선의 가장 폭발적인 자세인 구개세(鉤開勢)로 상대방을 끌어낸다. 구개세는 마치 큰 갈고리 혹은 빗자루로 좌우를 끌어내듯이 낭선을 휘두르는 자세를 말한다.

이때에는 낭선의 길이와 무게를 생각해서 오른편으로 한발 움직여 동작의 중심으로 잡고 다시 반대편으로 발을 옮기며 낭선을 휘두르게 된다. 4m가 넘는 가시철조망을 좌우로 휘두르면 쉽게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대가 이것을 피하거나 막으면 다시 낭선을 빙글빙글 돌리며 적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낭선의 장점이 크고 무거운 휴대용 철조망인데, 그것이 단점과도 직결된다. 낭선은 육중하고 동작이 커서 만약 낭선의 큰 움직임 사이로 적이 빠르게 파고 들어온다면 방어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어전법이



크고 육중하게 움직이는 낭선을 보호하기 위해 등패수가 짝을 이리워 방어력을 높였다.

고안되었다. 바로 등패라는 방패수와 함께 한 짝이 되어 접근전을 펼치는 적군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낭선은 명나라 보병의 근접전투 무예였다. 그런데 그 외형만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무기였다. 실제로 낭선을 처음 본 조선군은 그 이상하게 생긴 외형 때문에 설마 저런 무기로 살기등등한 일본군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느냐고 비웃음 반 의심 반의 눈길을 보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은 일본군의 왜검에 처참하게 도륙당한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전장의 공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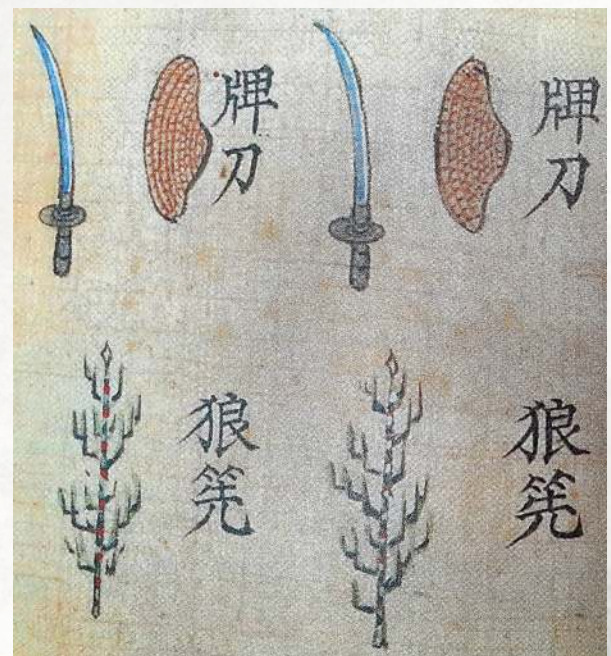
하지만 1593년, 일본군의 북진 의지를 단번에 꺾어버린 제2차 평양성 전투에서 낭선을 이용한 명나라 보병의 활약을 직접 눈으로 보며 그 의심은 단 한 순간에 사라졌다. 등패와 짝을 맞추며 날카로운 왜검을 들고 날뛰는 일본군이 낭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전투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다.

또한 장거리 행군 중에 적의 북병을 만나면 빠르게 아군 진형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행군 중에 낭선수 여러 명을 겹으로 배치하여 만약 적의 북병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낭선을 이용한 견고한 방어진형을 만들 수 있

어서 전술적으로도 가치가 큰 무예로 인식되었다.

이후 조선군은 낭선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 힘이 좋은 군사를 따로 뽑아 이 무예를 익히게 하였다. 특히 국왕인 선조는 명나라의 무예인 낭선을 빠르게 조선군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군사들의 진급시험인 시재(試才)의 과목으로 지정하여 보병들의 무예 능력을 높였다. 또한, 차령산맥 위쪽으로는 대나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낭선을 만들기 적합한 대나무 수천 그루를 수송하여 북방의 성곽을 방어하는 전용 무기로 삼게 하였다.

현대전에서도 전장의 상황은 빠르게 전개된다. 적군의 예기치 못한 전술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승패가 갈린다. 낭선은 비록 명나라 군대의 무예였지만, 조선군이 흡수하여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한 무예였다. 총탄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현명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전술전환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낭선이다. AF



조선 후기 병서인 『병학지남』에 실린 낭선과 등패의 합동전술 그림

제42화 권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위원장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안녕하세요. 공군본부 병영정책과에서 자살예방 전담교관으로 활동하다 지난 9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하고 10월부로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권순정입니다. 공군에서 복무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저를 알 거라 생각해요. 저는 지난 12년간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공군 부대를 순회하며 자살예방교육을 이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자살예방교육이 공군에서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더욱 많아지기도 했었죠. 저는 이제 자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공군에서의 마지막을 월간 『공군』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비대대 군무원으로 시작해 자살예방 전담교관이 되기까지

죽고 싶다는 충동
느꼈지만

자살예방교육으로
희망 찾아

이후 직접 자살예방
전담교관으로 활동해

1999년, 우연히 신문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 군무원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당시 공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공군’ 하면 멋지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군무원 채용 분야가 조종사 장구를 정비하는 분야였는데, 제가 정비한 장구와 조종복을 입고 공군 조종사분들이 하늘에서 멋있게 비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결국 저는 공군 군무원을 지원했고 1999년 9월 1일부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비대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 축산자동화설비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전염병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워지면서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말았던 거죠. 집으로는 매일 대부업자들이 찾아오고, 월세방에는 압류 스티커가 붙었어요. 심지어 부대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생계가 곤란해지니 남편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새벽에 우유배달도 하고, 매일 밤 식당에서도 일했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당시 남편이 큰 교통사고까지 당했어요. 가해 차량은 무보험 차였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없으니 정말이지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기에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권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위원장

당시 공군에 자살예방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보다가 좋은 글이 있으면 따와서 올리기도 하고, 주로 희망적인 글을 적었죠. 그걸 보신 어떤 분이 제가 걱정되었는지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자살예방교관 양성교육에 다녀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당시 자살예방 차원에서 저에게 추천해주신 것 같았어요. 2009년 3월, 군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꼭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지난 8월, 공군본부 핵심계층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권 위원장

자살예방교육 최초로 의무화한 공군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의무교육
되기까지 10년 걸려

사실 제 가족이 자살로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를 많이 도와 주던 사무실 동료와 옆 사무실 동료도 자살로 사망하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자살 경고 신호를 보내왔었지만 저는 그게 신호라는 것을 몰랐어요. 교육을 받고 뼈저린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군에 왔을 때 이런 교육을 조금만 일찍 받을 수 있었더라면 소중한 사람들을 자살로부터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지만 더는 저처럼 몰라서 소중한 사람을 잃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부대로 돌아온 뒤 제가 직접 자살예방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전비에서 정비대대 군무원으로 있다가 공군본부로 올라와 자살예방 전담교관으로 활동할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으로 생긴 보직이라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자살예방 순회교육을 가면 부대에서도 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교육장에 오셔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대놓고 비난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일도 바빠 죽겠는데 자살예방교육 때문에 내가 자살하게 생겼다’, ‘나는 안 죽을 건데 내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는 말들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교육이 끝나고 혼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정착됐어요. 공군은 국가기관 중 최초로 2018년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군에 들어오는 모든 장병들에 대한 양성과정에 생명지킴이 교육을 반영하고 있고,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 전 장병이 반기 1회,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훈련을 하듯이 생명지킴이 교육도 해마다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해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타군과 기관들도 자살예방교육을 하루빨리 의무교육으로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군을 위한 보고듣고 말하기’

故 임세원 교수와
‘보고듣고말하기’ 개정

공군에 이어 타군
버전까지 직접 개발

공군에서 시행했던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보고듣고말하기’인데요, ‘보기’는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의 경고신호를 식별하는 것. ‘듣기’는 실제 자살 생각을 물어보고 죽음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 ‘말하기’는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공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는 전군 최초로 국가 인증을 받은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공군본부로 와서 처음 교육할 때, 마음만은 진심으로 교육했지만 금방 밀친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가 ‘보고듣고말하기’라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자살은 분명 예방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 프로그램은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자살예방 분야의 권위자셨던 故 임세원 교수님이 처음 개발하셨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군에서 교육하다 보니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인지 2014년에 임 교수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프로그램 개정 작업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진들과 함께 공군의 특성을 반영한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공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는 실제 자살로 사망하신 분들의 임상 요인을 분석해 제작했어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드라마 작가가 대본을 쓰고, 영화감독이 촬영해서 공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이야기를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타군에서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구진과 저는 육군, 해군, 해병대 버전 프로그램까지 개발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군이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보상

명절, 휴일 없이
위기상담전화 빙발쳐

꾸준함에 대한 보상,
‘제1회 임세원상’

공군 자살예방 전담교관으로 생활하면서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훈련단 화장실이나 각 부대에 자살예방 관련 홍보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제 핸드폰 번호가 다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당직을 서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나 휴일은 물론,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수시로 위기상담전화가 와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 함께할 때도, 제가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도 전화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혹시 누군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 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전화를 받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심장이 마구 뛰고, 눈물이 쏟아지고 머릿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를 잃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지’, ‘지키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내게 비난하면 어떡하지...’ 늘 이런 두려움 속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공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 개발결과 보고회 당시
故 임세원 교수(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권 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하지만 힘들었을 때를 반대로 바꿔 생각하면 자살예방 전담교관으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들이에요.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연락을 줬다는 것도 그래요.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도움을 청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이 살아있기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 번은 추석 연휴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다행히 그분의 안전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있는 곳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기적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함께 영영 울었어요. 살아줘서,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꾸준한 노력이 보상받는 행복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1회 임세원상’을 수상하게 된 것인데요. 임세원상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故 임세원 추모사업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임세원상의 첫 시상이었고 딱 한 명에게만 주어진 상이라 제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보직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시기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10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고생이 많았었죠. 수술실 앞에서 딸이랑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참 기뻐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저희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되었죠. 임 교수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2021년 10월, 제1회 임세원상을 수상한 권 위원장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드는 꿈 가져

정비대대 군무원으로 11년, 자살예방교관으로 12년을 활동하면서 제가 정년 전에 공군을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공군을 많이 사랑하고 늘 공군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결심할 때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교육할 때마다 제 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군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10년 넘게 말해왔어요. 전국에 있는 장병분들, 자살예방 교육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 응원 해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그 오랜 시간 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로 나가서도 자살예방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할게요.

여전히 군 사망자의 60%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군 자살예방 정책이나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도 각 지자체에 있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늘어나서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군이 그동안 자살예방을 정말 열심히 잘 해왔고,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사망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공군에 대한 자부심이 점점 줄어들고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워요.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지켜낸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각자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공군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 공군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생명지킴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F



우리의



작은 관심이 동료의 생명을 지킵니다!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Pitch Black 복귀

지난 8월 29일(월)부터 9월 7일(수)까지 호주에서 이뤄진 Pitch Black에 참가했던 장병들이
10개국 공군과 함께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전하게 복귀해 동료와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제20전투비행단 2022년 전투지휘검열(ORI)

제20전투비행단은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2022년 전투지휘검열(Operation Readiness Inspection, ORI)을 수검하며 작전수행능력을 점검했다.

*사진: 경계태세 격상에 따라 대공방어대 장병이 신궁포대에서 전투 대기 중인 모습





2022년 민·관·군 항공안전 심포지엄



정상화 참모총장은 9월 20일(화), 공군호텔에서 ‘기술·사회적 변화와 안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2년 민·관·군 항공안전 심포지엄을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와 이를 보장하는 법률은 우리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뒷받침해줄 것”이라며, “안전의 핵심은 사고 예방에 있고 이를 위해 위험 요소(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 보장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사관학교 현장 지도 및 KT-100 지휘비행



정상화 참모총장은 9월 16일(금),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부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항공우주 시대의 주역이 될 사관생도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주요 지휘관·참모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참모총장은 공군사관학교 예하 제55교육비행전대를 방문해 KT-100 훈련기로 지휘비행을 실시하고, 교관조종사 및 비행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비행대장 소통 간담회



정상화 참모총장은 9월 15일(목), 공군본부에서 공군 핵심전투력인 비행대대의 비행대장들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참모총장은 비행대대에서 대대장과 대대원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행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비행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조종사 인사관리 정책 소개, 참모총장 간담회, 건의사항 수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박용후 PYH 대표이사 초청 특강으로 진행됐다.

페루 공군 대표단 접견



정상화 참모총장은 9월 19일(월), 대한민국 공군과 페루 공군 간 공군 대 공군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공군본부를 방문한 페루 공군 참모장 까를로스 엔리께 차베스 까페리아노 중장을 비롯한 페루 공군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국산항공기 KT-1P를 운용하고 있는 페루 공군과 주요 현안 및 군사 교류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작전사령부

2022년 UFS 연습

작전사령부는 8월 22일(월)부터 9월 1일(목)까지 약 2주간 2022년 UFS 연습을 주관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이번 연습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공군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했다.



교육사령부

제11회 공군 조리경연대회

교육사령부는 9월 14일(수), 병사 급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신메뉴 개발을 통해 급식 질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제11회 공군 조리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11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조리 실력을 뽐냈다.



제1전투비행단

'22년 3분기 사랑의 헌혈 운동

제1전투비행단은 9월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혈량 감소와 하절기 혈액 수급 불안정을 타파하기 위해 장병들은 헌혈에 동참하며 생명 나눔에 기여했다.



제8전투비행단

항공기 사고처리 훈련

제8전투비행단은 9월 2일(금),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기 사고처리 훈련을 실시해 지상구조반 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사고처리절차를 숙달하는 등 작전 요원들의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했다.



제10전투비행단

추석 맞이 단합행사

제10전투비행단은 추석을 맞아 대대(부서)별 단합 행사를 실시했다. 부대는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피구, 줄다리기, 농구 등 체육행사와 영화상영, 특식 등을 지원했으며, 장병들은 서로 격려하고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8전투비행단

추석 맞이 부대 인근지역 민원 예방활동

제18전투비행단은 9월 5일(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대 인근지역 마을회관을 찾아가 민원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장병들은 건강식품 등 물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 달, 한 권



하얼빈



여름도 가고 태풍도 가고 이제 정말 가을입니다. ‘독서의 계절’을 놓치지 마시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에 추천하는 책은 김훈 작가의 신간 소설 『하얼빈』입니다. 제게는 책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사서 읽는 작가가 몇 분 있습니다. 김훈 작가도 그중에 한 분이네요. 새 작품이 기다려지는 작가가 있다는 건 일상에 새로운 기쁨을 들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신곡을 기다리듯 말이죠. 여러분께도 그런 작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얼빈’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만주? 추위? 다 맞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안중근’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는데 그 거사의 땅이 바로 하얼빈입니다. 그 일은 1909년 10월 26일에 있었고 안중근은 그때 서른 살, 젊은 남편이고 아빠였습니다.

이번 소설 『하얼빈』도 김훈 작가의 다른 소설들처럼 담담합니다. 조선의 청년이 일본제국의 제1대 총리대신이자 조선통감부 통감을 암살하는 일을 다루는데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암살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밝힙니다.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안중근을 추앙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듯합니다.

작가는 소설의 전반부,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안중근과 이토를 번갈아 등장시킵니다. 일본제국의 수도 도쿄에서 천황 메이지와 대화를 하는 이토와, 황해도 어느 산속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포수 안중근을 교차 등장시켜요. 이런 구성으로 인해 독자는 그들이 이미 서로를 향해 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지배국의 조선통감부 통감이고 또 한 사람은 피지배 국가의 일개 청년. 처한 입장만큼이나 거리가 먼 두 사람이 마치 기관차가 마주 달리듯 그렇게 달리다 결국 운명의 한 점에서 만나게 한 겁니다.

1909년 가을, 이토 히로부미는 걸으론 유람을 내세우지만 실은 러시아와 모종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중국 여순항에 닿은 후 대련에서 기차로 하얼빈으로 가요. 이때 반대편에서 안중근이 옵니다. 안중근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조선을 망하게 하는 역할을 이토가 하고 있으므로 그가 하는 일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를 죽여야 한다고. 이런 중에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기사를 접하자 안중근은 바로 거사를 결정합니다. 그때가 아니면 다른 때를 도모하기 어려웠으므로 이토의 하얼빈행을 안 지 이틀 만에 결행해요. 어찌 보면 허술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수백, 수천 시간 수련한 운동선수가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 해내듯 그도 그랬습니다. 그런 안중근이었으므로 흔들림이나 두려움 같은 건 없었어요. 적어도 ‘김훈의 안중근’은 그런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안중근이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헤아리는 건 우리들의 몫이겠지요.

안중근 의사와 함께 거사에 나선 우덕순이란 인물도 감동적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백성으로 담배팔이나 하던 그였지만 안중근이 그를 찾자 단번에 뜻을 헤아리고는 하겠다고 합니다. 죽음이 예상되는 일인데도요. 두 사나이는 그런 일을 도모하면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습니다. 서른 안팎의 청춘들이 그랬습니다.

거사 후 안중근이 재판을 받는 대목에서 제 맥박이 최고로 빨라졌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으니 얼마나 파장이 컸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관심도 컸고요. 그러자 일본은 이 일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포수였으나 암살 당시엔 무직이었던 자가 일본 제국의 대의를 이해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로요. 하지만 안중근은 법정에서 정치적 행위임을 주장합니다. 자신이 이토를 죽인 것은, 죽여야 하는 이유를 발표하기 위함이다, 자신은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중장 자격으로 이토를 죽인 것이므로 전쟁 포로로 법정에 선 것이다, 따라서 자객으로 신문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인데 실은 안중근의 진술은 처음부터 유불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를 직시했고 목숨을 걸었으며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작가 김훈은 젊었을 때부터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쓰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안중근의 짧은 생애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어려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작가의 얘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세상은 소명이라 하는데 내게는 무엇이 그런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은 제복 입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군인, 소방관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우를 다하죠. 나라를 지키고 근본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백여 년 전 청년 안중근은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거사를 단행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일 겁니다. 마침 이달엔 국군의 날도, 공군 창군일도 있네요. 여러분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설 『하얼빈』을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AF**



『하얼빈』
김훈 지음
문학동네 펴냄



글쓴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9년간 일했고 2016년부터 서울 강남에 ‘최인아책방’을 열어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께 해법을 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명상을 말한다



지혜로운 말

우리가 어떤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는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니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의 입에서 흘러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말에 현혹되고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자신이 하는 말의 지배자가 된 것처럼 느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기도 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듯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것이 항상 명확하거나 논리적이거나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생각과 말과 글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의해 자신이 얼마나 현혹되고 있는지, 타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장에 가 있다고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자들은 발표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발표자로부터는 기대했던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은 의무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집단적으로 어떤 기만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그냥 어떤 말들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은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이 있는 TV 시청자들이나 라디오 청취자들에게는 흔한 경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상에서의 분명함이란 상호 소통을 함에 있어서 서로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타인에게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능력과 “실



제로 분명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서로 쉽게 혼동합니다. 기자회견장에 선 발표자는 매우 유식하면서도 대답에 거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면에서는 편치 않은 마음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열쇠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거만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드러낼 뿐이지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악의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회와 문화를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지요. 또 특정한 견해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끔찍한 성향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화의 내용이 되는 주제가 아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의견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천한 말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이 낫습니다.”

천한 말들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라리 고귀한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종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다르게 말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말에 지혜와 친절함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덜 비판적인대신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되지요.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종종 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일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오직 상대방의 귀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상대방에게 속삭인 말이 종종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거나 위축되어 깊은 주제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즐겁고 훌륭한 유머와 합리적인 대화는 모두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훈련하는 건 진실로 친절한 행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대화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며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들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이미 그럴 의도가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창피를 주고 위협하려는 의도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잔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 한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표정을 가장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상처받는다느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듣는 말은 단지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무수하게 오고 가는 말들 가운데서 평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 귀 중 하나는 칭찬을 듣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난을 듣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귀는 그 중간에 존재하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수 행하도록 계속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딩케르크』로 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의 활약



영국의 스피트파이어 전투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딩케르크』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해변 도시 덩케르크에서 이뤄진 연합군의 대규모 철수 작전을 재현한 영화다. 영화는 당시 상황을 육·해·공으로 나눠 교차해가며 보여준다.

지상의 해변에서는 연합군 병사들이 영국 본토로부터 대피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바다에는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지로 떠나는 영국 민간 어선들이 있었다. 하늘에는? 세계 최강 전투기인 스피트파이어(Supermarine Spitfire)가 있었다. 조종사들은 연합군이 모여있는 해안 해두보에서 독일 전투기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톰 하디가 연기하는 조종사 파리어는 연료가 다할 때까지 싸우다가 해변에 간신히 착륙해 적군의 포로가 된다.

하지만 다른 공간에 있는 이들은 서로가 싸우던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공군과 관련해서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한다. 독일 전차에 포위된 채로 해변에서 대기하던 영국 군인들에게 독일 공군이 폭탄을 쏟아붓고 떠난다. 영국군 병사 한 명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애원 반, 푸념 반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우리 공군은 어디 있는 거야(Where’s the bloody air-force)?” 무사히 영국 본토에 철수를 마친 병사들이 무리에 섞여있는 공군 조종사를 보고 “너희는 뭐했어?”라고 따지는 장면도 있다.

실제로 당시 해변에 있는 병사들은 구름에 가려 전투기의 모습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 격추돼 바다에 떨어진 공군 조종사들에게 해군 병사들이 “너네는 안 태워, 군인만 태울 거야”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는 일화가 나온다. 무리에 섞여 귀국하던 공군 조종사들은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인 채로 배에 올랐다.

목숨 걸고 싸운 조종사들은 무척 억울했을 거다. 시간이 흘러 역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불리한 전황을 뒤엎을 수 있게 만든 주역이 영국 공군이었다고 기록한다. 영국 왕립공군(RAF)은 하늘에서 독일 공

군을 물리치며 바다 위를 오가는 배 900여 척을 보호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보다 더 큰 활약은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있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은 1940년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국 상공에서 벌어진 영국과 독일 공군 간의 전투다. 독일 총통이던 아돌프 히틀러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자신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자 본패를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 히틀러는 독일 공군의 힘을 과신했다. 독일군이 개발한 전투기 Bf 109는 엄청난 급강하 능력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폭격을 가해 전장을 초토화시키고 사라지는 등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덩케르크 해변에서는 독일군에게 쫓겨 자국의 병사들을 급격히 철수시켰던 영국군이었지만, 하늘에서만큼은 달랐다. 당시 영국 공군에는 전설적인 인물들이 몇 있었는데, 전투기 사령부 사령관인 휴 다우닝이 그중 하나였다. 그는 스핏파이어 개발에도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우닝 시스템’이라는 방공 시스템을 개발해서 빈틈없는 방공 시스템을 유지했다. 영국 남부와 동부 해안을 따라서 110m 높이의 레이더탑 21개를 배치해 이로부터 193km 떨어진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전투기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탐지 범위 밑으로 저공비행을 했는데, 영국군이 설치한 ‘체인 홈 로우’라는 작은 레이더 탑들에 감지돼 선제 공격을 당했다.

그해 여름 영국군은 쉬지 않고 전투기를 생산해 독일군보다 2배 많은 물량을 만들어냈다. 스핏파이어는 연합군을 통틀어 Bf 109와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전투기였다. 수평이동 속도와 선회력이 Bf 109보다 우세해 대등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었다. 독일군은 해협

을 넘어 2,000번 넘게 출격했지만, 스핏파이어에 번번이 격추당했다. 1941년 독일군이 영국에 대한 항공전을 완전히 접었을 때, 독일의 항공기와 조종사 손실은 독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있었다. 전세는 역전됐다.

막강한 기술력과 정교한 군사시스템이 승리의 핵심인 것 같지만, 조종사들의 활약과 희생이 없었다면 승리는 불가능했다.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국 본토 항공전’ 편에서는 당시 조종사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해 7월 평균적인 영국 조종사들의 삶은 정신분열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 하루에 5~6번 출격했고, 전투는 굉장히 치열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30분쯤 뒤에는 다시 내려와서 해산하고 대기했다.”

가장 어린 조종사였던 조프리 웰럼은 이렇게 말한다. “대기시간에 느꼈던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벨 소리가 들리면 바짝 긴장한 채 허둥지둥 스핏파이어에 올라탔다. 좌석 밑에서 내려와 엔진의 떨림을 느끼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렸구나.’”

지금도 공군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모두가 평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화 『덩케르크』를 보며 다시 한 번 떠올려봤으면 한다. **AF**



영화 『덩케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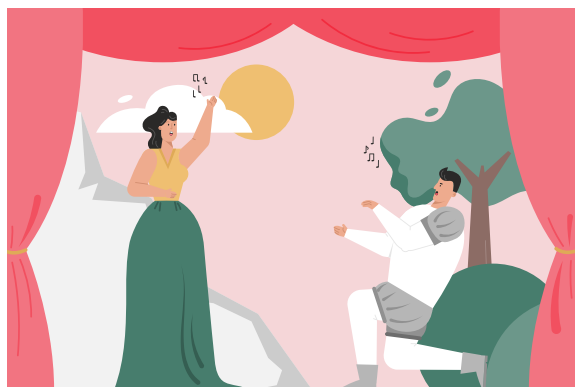
글쓴이

경향신문 이해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기자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맡아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영화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클래식 톡톡



노래로 이야기하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야기’이다. 현대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와 국제적인 시장을 가진 것이 바로 영화인 이유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꿈꾸고, 듣고 즐기고 싶어한다.

모든 매체를 구독서비스로 결제하고 휴대하며 즐길 수 있는 현대와 달리, 중세 유럽은 종교적 금기와 이데올로기에 절제된 삶을 강요받았다. 그러다 흑사병과 종교개혁을 거치며 사람들이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대항해시대를 거치며 경제적 풍요를 누리던 르네상스를 거치면, 예술 분야 전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 연극과 무용이 합쳐진 종합예술 오페라가 탄생했다.

거창한 오페라 역사를 훑어보기보다는 오페라를 즐기는 방법을 알면 자연스레 역사도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에게 매료된다. 자신과 다른 세대의 배우는 낯설어도 가수 이름은 익숙하다. 한번 부모님 세대의 배우 이름과 가수 이름 중 어떤 걸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매체를 장악하다시피 한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훌륭한 예시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전해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마다할 리 없었다. 오페라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또 다른 형태의 종합예술 이야기거리인 영화라는 매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기의 정점에 있었다. 그리고 노래를 곁들인 이야기인 오페라는 20세기에 뮤지컬을 탄생시켜서 현대 가장 인기 있고 규모가 큰 공연 매체가 됐다. 노래와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에서 항상 최상의 흥밋거리였다.

오페라를 접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언어다. 일단 친숙한 영어권도 아닌 라틴어족인 이탈리아어가 기본에다 독일어, 프랑스어 등 서유럽 언어가 지배적이어서 진입장벽이 제법 있는 편이다. 다행히 현대에는 공연장

에서도 자막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더는 언어가 장벽이 되지 않는다.

현대 영화나 드라마가 갖추고 있는 구성요소를 오페라도 갖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인공을 둘러싼 이야기 구조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절반은 끝난 것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멜로 드라마’는 현대에는 신파와 애정을 동반한 통속극 정도로 여겨지지만, 원래는 음악이 곁들여진 연극이라는(Melody + Drama) 뜻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주제가 바로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였다. 그래서 지금은 애정물을 멜로 드라마라고 부르지만 2세기 전까지만 해도 멜로 드라마는 Melodrama = Opera였다.

이 당시 멜로 드라마는 세월을 거쳐 꽤 다듬어진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우연, 복선, 갈등, 파벌, 음모, 해결, 권선징악, 짧은 시간 등등의 요소가 기본 양식이다. 잘 생각해보면 현대의 TV 시리즈, 특히 아침드라마의 구성이 이 멜로 드라마의 문법을 충실히 따른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빠르게 얻고, 지속해서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요소들의 검증된 조합이다.

서로 모르던 남·여가 회사에서 ‘우연’히 부딪혀 서로를 알게 된다. 그런데 재벌 2세인 남자주인공과 가난하지만 밝고 착한 여주인공의 로맨스를 방해하는 ‘갈등’세력인 예비 시어머니나, 혹은 여주인공을 질투하는 재벌 2세를 짝사랑하는 다른 재벌 2세 상속녀가 등장한다. 남녀 주인공을 둘러싸고 각 세력은 ‘파벌’을 구성해서 각 주인공 옆에는 이른바 ‘사이드킥’이라고

불리는 감초 조역들이 세상없는 친구들이나 수하로 등장한다. 여주인공을 핍박하던 상속녀가 여주인공을 모함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이걸 주인공의 절친이 ‘우연’히 알게 되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주인공을 음해하던 나쁜 편은 TV 생방송으로 구속되는 ‘권선징악’을 거치며 주인공 남녀는 행복하게 둘만의 여행을 떠나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여기에 주인공의 출생 비밀이나 숨겨진 지병 등을 암시하는 ‘복선’과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일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 한두 가지의 옵션이 곁들여지면 더 쫄깃한 스킬을 선사하는 좋은 양념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현대 드라마나 영화의 구성은 대부분 19세기에 완결된 멜로 드라마의 문법과 오페라의 양식을 그대로 따른다. 더군다나 오페라는 아주 훌륭한 BGM과 멋들어진 넘버의 노래를 같이 선사하니, 영화 등장 전까지는 대중매체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오페라 역사 불멸의 스타로 군림한 엔리코 카루소나 마리아 칼라스의 공연은 요즘처럼 밤샘 티켓팅은 기본에,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기사화될 정도로 엄청난 관심거리였다. 그리고 출연할 작품을 경쟁사와 다투며 매니지먼트로 보호하던 현대의 할리우드 스타시스템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오페라는 좋은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나 수 세기를 거쳐 현대까지 주요 오페라 하우스의 단골 레퍼토리로 자리 잡은 오페라들은 세월을 넘어선 작품성과 흥행력을 검증받았다. 다음 편부터는 오페라를 본격적으로 엿보자. **AF**



글쓴이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전공 만점으로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다. 모교인 목원대학교에서 재직하며 수백 편의 오페라 주역과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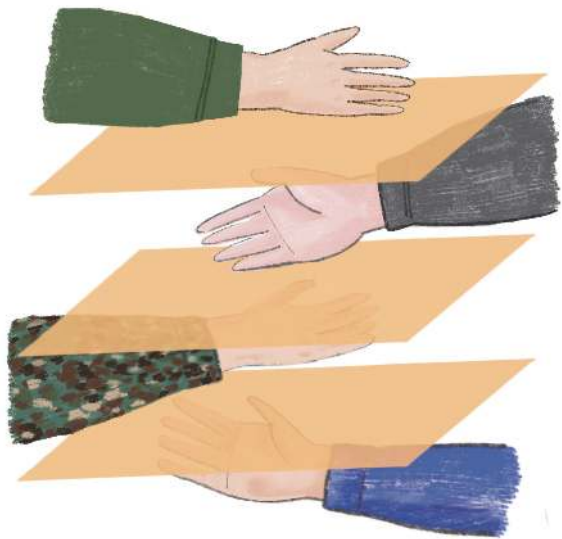
생각하는 그림

글 | 조제원 일병(공중기동경찰사령부 보좌관실)

그림 | 강은정 작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가수 임재범 씨의 명곡 중 하나인 「비상」 속 가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 간의 단절, 사회적 고립인데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단절과 고립의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 요즘도,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립과 단절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학자 데이비드 빈센트(David Vincent)는 자신의 저서 『낭만적 은둔의 역사』에서 임재범의 노래 가사처럼 고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고독과 외로움이 개인의 선택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로 어떤 무리에서 떨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무리에서 나와 혼자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는 고독한 상태입니다. 빈센트는 개인이 자유롭게 고독한 생활과 집단생활을 왕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빈센트의 주장은 현대 사회 속 외로워하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 간에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에 들어왔지만, 반대로 개인의 시간, 고독한 시간을 가질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어졌습니다. 인터넷과 SNS 속에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연결은 반대로 누군가의 시선에 구속받는 감옥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개인 시간과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택권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에너지를 소진될 때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텅텅 빈 마음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역시 사회로,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공간입니다.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일과 시간 이후에도 단체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수많은 사람들과 호흡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이 땀을 흘리는 이 자리에서 끈끈한 팀워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팀워크는 단순히 구성원들이 함께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팀을 구성하는 개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진정한 팀워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팀워크를 만드는 첫 단추는 역설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공군인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회복하고, 동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길 기대합니다. AF

공군인의 편지

글 | 병장 이바다(제3훈련비행단 항공기정비대대)

삽화 | 게티이미지뱅크

그날의 음식들

초록빛이 푸르던 훈련소 입대 날,

할머니가 저를 위해 사랑으로 만들어준 그 음식들이 자
대에 온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생각
이 나네요.

수육과 김밥, 그리고 포도를 싸주셨는데 그 음식들 속에
서 저에 대한 할머니의 생각과 사랑의 의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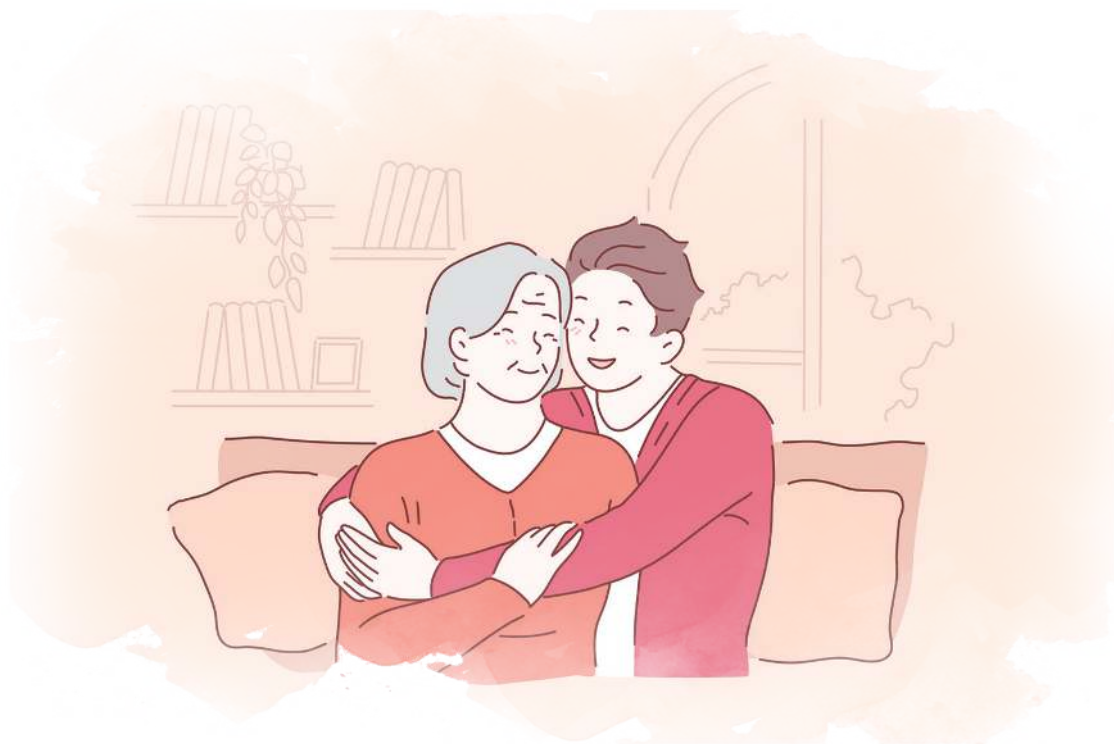
수육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할머니의 마음, 그 알들이 풍
성하게 박힌 포도가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주시는 마음과
같았고, 평범하지만 가지런하게 쌓아서 만들어주신 김밥
에는 할머니의 정성을 엿볼 수 있었고, 여러 속 재료들을
감싸주는 김에서는 할머니가 생각이 많은 나를 안아주는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들을 먹은 1년 4개월이 지
나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제가 변해있다는 걸
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위해 신경 써주
시고, 애써주신 점 참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당하는 그런 일
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를 위해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챙
겨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마음이 참 고맙고 또 감
사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열심히 살아 꼭 보답하면서
살게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책읽는 공간

글 | 상병 김진웅(제10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

죽음을 기다리며 탄생을 보다

여러분에게 이어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88올림픽 개회식 속 굴렁쇠 굴리는 아이를 등장시켜 전 세계에 여백과 정적의 미를 알린 전 문화부장관입니까? 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결합을 중요시하며 디지로그 그리고 생명자본의 가치를 주장한 미래학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만은 이어령 선생님을 “지혜를 가진 죽는 자” 영성의 이어령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책의 표제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인 만큼 이 책에는 선생님의 마지막 지혜의 정수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펼쳤습니다. “촛불은 끝없이 위로 불타오르고, 파도는 솟았다가도 끝없이 하락하지. 촛불과 파도 앞에 서면 항상 삶과 죽음을 기억하게나. 수직의 중심점이 생이고 수평의 중심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메멘토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정말 대단한 것을 생각한 저의 예상을 부숴버리기라도 하듯 라스트 인터뷰라기에는 너무나도 의연한 태도로 죽음 앞에서 담담히 삶을 미학들을 풀어 내셨습니다.

책을 넘기면서 선생님이 하신 경고들과 충고들이 저의 머릿속에 추파를 던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그 끝이 끝내 죽음이라 할지라도 집 나간 탕자와 같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돌아온 자식이 부모 눈에 더 떨 것이다. 너의 뇌가 당연하고도 편한 사실 속에서 안식하려 하거든 이성을 깨워 무리에 속하지 말고 항상 의심하며 스스로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무리에 속하지 않으려 했기에 고독했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기에 외로웠다는 선생님의 말씀. 성인의 가르침과 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인간

과 같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그리고 다채로운 말솜들을 남기셨기에 더욱더 선생이자 스승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인간을 “고통과 고난 끝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휘하는 존재”라고 설명하신 것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성경 속 욥과 예수의 고난, 트로이 전쟁 속 10년의 고통 끝에 영혼의 아름다움을 뽐아낸 필로테테스의 이야기들이 저의 뇌를 강타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고통의 불구덩이로 밀어 넣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뽐아낼 때 “너! 존재했구나.”라고 삶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너 존재했어?” 무조건적인 인간찬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항상 죽음이 삶과 함께 당신의 곁에 있다고 인지하면서 써 내려간 글들이 수십 권, 이 책 또한 그러한 책들 중 하나였습니다. ‘완성은 없으니 계속해서 써나갈 뿐이다.’ 이어령이라는 육체는 사라져도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라스트 인터뷰는 정말로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자 탄생이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지음
도서출판 열림원 펴냄

마음의 소리

조향원

chwhw20**@naver.com

9월호 공군지에 특집으로 다뤄진 ‘공군 하트세이버’ 기사를 흐뭇하게 읽었습니다. 기사 속 공군 하트세이버 선정 현황을 보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으며, 하트세이버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공군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시 우리 공군이야 말로 하늘 속에서는 푸른 영공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대이며, 땅 위에서는 위기의 순간 꺼져가는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수호천사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더욱 많은 하트세이버, 생명을 되살리는 영웅이 탄생되길 기대합니다.

(AF. 하트세이버 장병들은 하나같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공군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군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용기 내 준 장병들의 노고를 인정함과 동시에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트세이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살릴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우

cosmic**@naver.com

저는 공군의 따뜻한 사회공헌 활동을 읽는 기쁨에 공군지가 오는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독자입니다. 공군의 따뜻한 사회공헌을 읽노라면 각박한 세월 속에 받아 온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9월호의 농촌일손돕기 봉사 소식을 듣고 봉사란 물질적, 금전적인 기부도 유익하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는 기부도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AF. 농번기, 태풍 피해 등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사회 곳곳에서 노력하는 공군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 『공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주세요!)

김연서

yeonse**@naver.com

어릴 적 대한민국 상공을 수놓는 블랙이글스를 보고 나도 저렇게 멋진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 공군사관학교 76기 사관생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 불안하고, 가끔 꿈을 접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지만 월간『공군』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월간『공군』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AF. 남몰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가능하기 어려워, 위로와 응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꿈으로 가는 길의 끝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늦어도 됩니다.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꼭 이뤄질 겁니다.)



구독문의 QR코드



마음의 소리 QR코드

마음의 소리 | 월간『공군』 홈페이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 공백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kyhmm6262@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5 3 2